학생수칙 (Student Handbook)

미국에서 어느 학교든지 상관없이 처음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학생이 지켜야 하는 학칙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을 상세히 설명한 "School Rules and Policies" 또는 "Student Handbook"에 담긴 내용을 잘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따르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즉, 자녀도 부모도 모두 해당 교육구 및 학교가 정한 학칙을 따르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숙지하여야하는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정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자. 다음의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에게 초점을 두었으나 중, 고등학교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출석 및 결석. 출석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부모, 학생 모두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두도록 한다.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갈 경우에는 몇 시까지 Attendance Office 로 연락을 해주어야 하는지, 병원에 갔을 경우 의사의 치료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보낸다던지, 결석을 했을 경우에 못한 숙제는 어떻게 make-up 을 해야 하는지, 수업 시간에 자녀를 데리고 와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지각을 하면 어떤 조처가 취해지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학교 내 안전수칙. 지난 1999 년 콜로라도 콜롬바인 고등학교 참사, 그리고 최근의 버지니아 텍 참사 이후 학교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문제이다. 안전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른 학생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만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된 총이나 칼을 몰래 지참하고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학칙이 정해져 있는데 부모, 학생 모두 꼭 알아두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미국의 모든 학교들은 무기나 무기처럼 생긴 어떤 물건도 학교 내로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전문제는 또 학교에 오가는 부모의 차량, 학교와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수칙,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그리고 롤러가 달린 신발을 신고 등교하는 문제 등 세세한 부분에 까지 엄격한 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고 따르도록 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이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 그래서 응급연락처(Emergency Contact Information)를 매년 정확하게 기재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하도록 한다.

학교방문수칙. 학교방문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 학교의 특별행사나 자녀의 학교행동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할 경우 교실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또 자원봉사로 학교를 방문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수업참관은 담임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먼저 약속을 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수업에 부모가 직접 참관을 할 경우 자녀의 평상시 행동보다는 부모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상시와는 다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녀의 학교행동, 특히 학습태도, 친구들과의 사회성기능, 놀이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자녀를 모르는 제 3 자를 보내서 행동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의 학교행동을 관찰하여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

학교자원봉사. 카페테리아, field trip, recess 시간 등 학교 행사에 자원 봉사할 경우 학교의 Parent-Teacher Association(PTA)에 문의하여서 알아보도록 한다. 또 학교에 자원봉사를 할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결핵 검사결과를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기재사용. 학교 내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규정을 부모, 자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인터넷접속을 규제하는 소프트웨어와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여서 학생들의 부적절한 인터넷 접속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인터넷 접속을 시도하거나, 또는 학교기재를 학교규정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어떠한 규제가 따르는지 부모, 자녀 모두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학교와의 교신. 자녀교육 세미나에서 한국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학교와의 직접적인 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와의 개별적인 만남, 또는 부모-교사 conference 에서 자녀의 문제를 상의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부모와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가 교사를 만나서 문제점을 의논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때 자녀들도 문제점이 있을 때나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만나서 문제를 상의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리포트 카드. 리포트 카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요약한 학습 진도에 관한 내용과 학생의 학교행동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리포트 카드에 담긴 내용은 물론 학생의 한 학기 동안의 모든 학업성취도 및 교내에서의 학습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평하게 학생의 성적과 행동을 평가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숙제 및 과제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성 있게 측정하고자 한다. 시험은 캘리포니아 표준학력고사(California Standards Tests)나 Stanford Achievement Test 처럼 표준화되어서 다른 학생들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시험도 있지만, 교사가 직접 만들어서 수시로 치르는 퀴즈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가 되는 자녀의 학습 진도에 대해서 부모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내 아이의 학업성취도상의 Strengths 와 Weaknesses(WIAT-III 성취도 테스트 참고바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점은 보강하고 장점은 더욱 더 강화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리포트 카드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물론이지만 자녀가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를 부모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행동에 관한 평가보고는 자녀의 학교 내에서의 품행, 급우관계, 수업참여도, 교사 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서 평가되어진다. 이것은 사실 부모가 자녀의 시험성적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내 아이의 행동을 평가한 내용에서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담당교사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미국교육에서 한국부모님들에게 다소 생소한 부분이 이 두 가지에 관계되는 내용일 것이다.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자녀키우기 "필수부모기술" 제 5 부에서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을 논하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다. 학생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지녔다고 판단되어지면 학교당국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미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미팅을 통하여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장애에 대한 문제를 논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의 발달기능, 학습능력, 행동기능, 그리고 성격적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사하는 종합심리검사(comprehensive psychological evaluation)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서 학교가 책임이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IEP 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 또는 개선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최초에 장애를 판단하는 일이 일선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장애에 대한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IEP 없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또 비록 IEP 를 했다고 해도 장애의 종류가 학습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AD/HD, 반항행동, 품행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학생의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학교 밖의 전문가를 통하여서 해결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나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학교는 IEP 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에 맞는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특별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자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학업성취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진다. 이때는 부모가 직접 IEP 미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미팅을 통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내도록 한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을 학교가 제공해주는 IEP 를 마련하도록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영재교육(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GATE)에 내 자녀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한지도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의 동의 없는 GATE 평가를 학교가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다. 학생에게 GATE 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질이 나타나고 있으면 이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있는데 여기서도 특수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일은 교사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학교가 제공하는 카운슬링 서비스. 학교에서 제공하는 카운슬링 서비스, 특히 School Psychologist, 언어치료사, 그리고 행동문제 카운슬러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도록 한다. 카운슬러는 학생의 학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행동 및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는데 제한된 횟수 내에서 학생을 카운슬링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각 교육구마다 다소의 차이가 나지만 "school-based" 심리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다. 위에 설명한 특수교육, 영재교육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부모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의 품행 및 행동문제와 학생/학부모의 책임. 학교는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교과목 공부를 위한 곳만은 아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공동체에 첫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익힌 사회성기능, 정서기능을 표출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는 등하교시의 스쿨버스, 수업중의 교실행동, 카페테리아, recess 시간의 운동장, 도서관 방문, field trip, 과외활동 등 모든 학교관련 활동에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학교당국이 정해 놓은 명확한 정책과 규칙이 있다. 부모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서 자녀가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집에서 도와주어야만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의 품행 및 행동문제로 학교에서 어떤 연락이 오게 되면 이때는 자녀의 행동이 학교가 규정하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미국교육에서 학생의 학교 내 행동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학생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담임선생에 의해서 행동의 문제는 먼저 보고가 되고 일단 담임선생님이 일차적으로 카운슬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차적인 조치로 행동이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담임선생님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고 부모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동참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감 또는 교장에게로 이 문제는 의뢰되어지고 스쿨 카운슬러, school psychologist, 담임선생, 그리고 부모가 모두 참가하는 conference 가 열리게 된다. 이 conference 에서 학교는 학교에 책임이 있는 부분, 그리고 부모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개선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부모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전문심리치료사를 통한 상담 및 치료를 전제로 하게 되며, 외부의 치료사는 학교, 부모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학생의 치료를 담당하여서 학교에는 치료경과를 통보해준다. 미국의 교육제도에서 심리치료사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되는 행동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학교당국은 학생과 부모가 전문심리치료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안전수칙위반 및 학생처벌. 콜롬바인 고등학교 참사 사건 이후로 미국의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한 대처는 지나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변안전에 관계되는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며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학교안전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주어지는 학생의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훈계 및 격리(Counseling & Detention).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음식물을 던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 그리고 학교 밖으로 무단으로 나갔을 때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교실에서 셀 폰, 아이 팟 등을 사용하거나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자전거 등을 학교로 가지고 오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압류하고 훈계 조치를 받게 된다. 복장위반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교복을 함부로 수선하여서 입거나 갱 관련 색깔 또는 후드가 달린 스웨터 등 금지된 복장을 하고 등교할 때 훈계조치 된다. 학교 안에서 도박을 했을 때도 같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정학(Suspension). 정학은 훈계 및 격리 다음 단계의 처벌이다.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나 파괴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주로 내려지게 된다. 다른 학생과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 선생님이나 학교의 권위 또는 질서유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 학교기물파손, 학교 내에서 흡연, 욕설, 다른 학생들의 소지품 훔치기, 마약사용기구 소지, 집단압력 등이 포함되며 또 우리 한국계 학생, 학부모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성희롱이 포함된다. 성희롱은 남학생이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놀리거나 몸을 함부로 건드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충분히 받아드려지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서로 친하다고 "툭"하고 건드리거나 어깨에 함부로 손을 얹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드리느냐에 따라서 성적인 희롱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훈계 및 격리조치를 했는데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도 정학처벌을 받게 된다. 정학은 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1 주일 정도까지 정학조치를 받을 수 있다.

퇴교(Expulsion). 정학 다음 단계의 처벌은 퇴교조치이다. 교내폭력행위, 칼, 총과 같은 무기의 교내 반입, 소지, 또는 사용, 강도 및 절도, 마약류 교내 반입, 소지, 또는 사용, 폭발물 교내 반입 또는 소지, 그리고 위의 정학조치를 통해서 행동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 퇴교 당하게 된다. 총기류 및 무기소지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학교범죄에 해당된다.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퇴교조치를 당하게 되며 거주지역 교육구에 따라서 퇴교 이후의 행정조치도 서로 차이가 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경우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퇴교를 당하면 "alternative school"로 불리는 대안(代案)학교로 보내진다. 퇴교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다른 정규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청문회를 열고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런 일로 퇴교당한 학생을 받아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턴시절 로스앤젤레스 공항 인근에 있는 어느 대안고등학교에서 일 년 동안 학생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내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퇴교당한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수업을 하는 대안형식의 연장(continuation) 프로그램이었다. 극소수의 한국계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섞여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 모두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학업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상담시간에 와서 보고하고는 했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Student Handbook 또는 School Rules and Policies 를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 웹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그 내용을 시간을 가지고 잘 읽어보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한다.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학교에 문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가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부모는 확인하도록 한다. 모르는 부분은 함께 의논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겠다. 나중에 "몰라서 그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